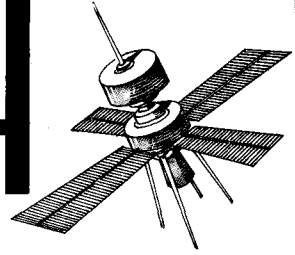


이달의

인테리어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노화방지에 난황을

진시황은 불로초(不老草)를 구해서 영원히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불로초를 구해서 먹어보기도 전에 늙어서 죽어갔다. 서양의 영웅 나폴레옹도 불가능은 없다고 외쳐 보았지만 현외투를 뒤집어쓰고 작은 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다 쓸쓸히 늙어 죽어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젊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이지만 노화방지를 위한 체력관리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동두천 최진삼씨는 기르고 있는 개가 12살까지 새끼를 낳았다고 자랑한다.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양계장에 들어가 케이지 밑에 떨어진 파란을 주어먹고 생활을 한다고 한다. 12살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새끼가

지 낳다니 계란의 위력을 알만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계란속의 노른자위에 들어있는 레시틴을 생산자들이 협동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의외로 높아 관심을 끌고 있다. 상품명은 난유80(卵油80)으로 하고 한병에 100캡슐을 넣어 치질약 또는 먹는 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난유는 계란의 난황을 불에 구워서 채취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난유가 건강에 우수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난유중에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시틴은 우수한 유화성(乳化性), 침투성, 분산성(分散性)을 가지고 있어 콜레스테롤의 용해 제거작용에 의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에 활력을 넣어주며 노화방지도 하여 크게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레시틴은 두뇌조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에는 불가결의 영양소로 되어 있다. 그외에도 생체막을 만드는 등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난유를 일반 소비자들이 먹기 좋도록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 제품의 크기와 디자인 등을 결정하여 상품화한 데 뜻이 있다. 상품명은 난유80이라고 한 것은 80%가 난황

레시틴 PL30이고 20%는 천연 바이타민E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황 레시틴과 바이타민E의 복합건강 식품으로 만든 것은 상승 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호평을 하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 난유80은 붐을 일으켜 주간지를 사 들면 광고가 꼭 눈에 띄고 그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선전이 되어 있다.

옛부터 건강에 좋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소비홍보로 잠재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家傳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에 치질에는 계란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있다.

한방에서도 치질을 치료할 때는 계란을 첩판 위에 놓고 새까맣게 태워 참기름과 혼합한후 항문 부위에 발라 치료하였다.

이를 현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위생적이고 예쁜 포장으로 대량 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 등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최근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 기호에도 맞게 제품을 다양화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계란소비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제품화 해볼만하다.



봄철 방역 철저히

양계산업이 집단화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질병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우기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운 질병이 끊임 없이 수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발병하였던 무서운 질병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최근 수입된 질병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요즈음 닭질병은 ILT와 감보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되기도 한다. 그 무섭던 뉴캐슬도 어디로 사라지고 만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방역을 게을리 하게 되고 피해는 커진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협회가 주관하는 혈청검사 사업이 이제는 육계에까지도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전염성질병 발생을 양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조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발병을 덮어두고 은폐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또 현 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수의사들이 뉴캐슬 등 법정전염병으로 진단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전염병 발생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수의사나 양축가들이 귀찮게 되고 살처분 등 재산상 막대한 손실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개업수의사의 경우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염병 발생을 은폐하는 소지가 있는 현행 제도는 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러운 것을 비단으로 덮어만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냄새가 나고 파리떼들이 알고 모여들게 마련이다. 우리 주위에 값이 비정상적으로 싸거나 닭을 다 키우기도 전에 삼계탕용 등으로 일찍 처분하면 일단은 주의를 하여 관찰해야 한다.

도계장에서도 검사원이 철저히 검사하여 전염병의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효율적으로 예방해야하고 생산자도 방역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5·16 혁명은 성공할 것인가

1961년 5월 16일 새벽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어 놓은 5·16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이 때는 온 국민들이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가 5월 16일 방송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난 것을 알수 있었다.

금년에도 이제 한달 16일이 지나면 5월 16일이 다시 찾아온다. 그러나 금년 5월 16일을 예년과 달리 양계업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할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85년 5월 16일을 기해서 도계유통에 일대 혁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특급도계장만이 제품을 타시도로 반출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서울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닭고기를 경기도 소재 도계장에서 처리하여 서울시로 반입하는 형편에서 물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것인가 하는 불안때문에 브로일러 사육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부화장도 병아리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 관심이 5월 16일에 쏠려 있다.

정부 당국이 시기를 왜 5월 16일로 잡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성수기가 시작되는 길목이란 점에서 잘못하면 76년의 재판이 되거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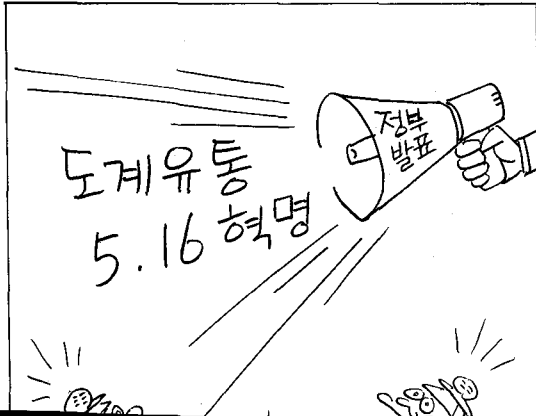
양축가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국의 속 시원한 설명이 없고 양축가와외의 충분한 대화도 없기 때문에 초생추임식계획 등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시일이지만 이제라도 일방적 통보가 아닌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 과거처럼 산술평균에 의한 설득과 일방적인 협조 요청보다는 왜 점진적인 개선방법을 택하지 않고 혁명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산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법이 법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집행하는 자나 적용을 받는 자와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86·88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계품의 품질을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고 싶은 심정이야 정부나 생산자나 꼭 같은 것이다.

다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어 못쓴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또 도계품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적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끝장이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우리는 낙원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록을, 500두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돈도 20두 이상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것으로 발표된 양계업의 등록제는 정부가 예정하기는 양계업의 경우 약 420개 농가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중 대부분은 기왕에 등록제로 되어있는 종계업자이거나 브로일러업자로 되어있다.

농수산부의 84년 12월말 가축통계에 의하면 3만수 이상 규모의 양계업자는 157호로(이중 5만수 이상은 54호) 전체 양계농가의 (367,004가구) 0.04%에 해당되며 이들이 사육하는 11,400,428수는 전체 46,483,161수에 대하여는 24.5%에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생산조절 명령도 할 수 있는 등 많은 규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

주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었다.

양계산물 수급에 대한 책임이 양계업자에서 정부에 넘어간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운용의 기본이 자유개방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등록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소규모 축산을 보호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히 일부 등록업자에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렵고 계절적으로 수요가 차이가 있는 등 가격예측이 어려운데 누가 생산조절 명령을 감히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부화업에는 생산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한번도 이 법이 시행되어 보지 못한 것으로도 실증이 되고 있다.

소규모 업자들도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혜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소규모 업자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축협이나 업종별 조합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규모 업자를 억제하여 소규모업자를 키워주는 방법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최근 신문소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임격정, 활빈도 등의 의적들의 활동은 입을 때 통쾌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운영을(퀴타배정등) 슬기롭게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부화업 허가제와 종계업 등록제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